



전남도와 보성그룹의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이 전남 해남 일원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전경.

사진=전남도제공

'AI컴퓨팅' 대반전 해남 솔라시도... 교육시설도 속도 내나

국내 기업도시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대형 투자가 잇따라 예고되면서 인력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인 국제학교 등 교육 시설 설립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삼성S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구축 후보지로 솔라시도를 선택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 인프라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2030년까지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 출자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합쳐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와 SK도 솔라시도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에 오픈 인공지능 전용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전남도, 교육시설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중 조만간 용역착수... 국비지원 근거 마련 협의

전남도는 또 국내 전산업계 1위 기업 LS전선의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LS마린솔루션과 해상풍력 전용 설치장만 조성·케이ابل 설치선 건조 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 SK·오픈AI의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계, 전력 다소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남도가 추진 중인 30GW 해상풍력 발전단지 목표 달성에 실질적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주 여건, 특히 국제학교 등의 교육시설 설립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솔라시도는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부지 특성 상 교육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투자 러시에 교육시설 수립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용역도 진행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특별법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국비 지원 조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기업도시 내 교육시설 설립 문턱이 낮아진 점도 심분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내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외국 학교 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드스 크리스천 스쿨(Redlands Christian School·RCS)과 솔라시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RCS 관계자들이 솔라시도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 인력이 솔라시도에서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립"이라며 "대규모 투자 사업이 성공으로 귀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한 23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내 박람회장에서 박람회 참여한 보성소채차농가가 차시음을 권유하고 있다.

"AI기술 혁신"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25개국 380개 기관... 나주 전남농기원에서 일주일간 진행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혁신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전남 나주에서 일주일간 동안 열린다.

전남도 등은 23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열렸다.

25개국 38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박람회는 일주일 기간 동안 기후 위기, 식량 안보 등 인류적 과제 속 농업이 제시할 수 있는 해법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히 AI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에 접목한 시도와 결과물들이 체험 등을 통해 선보인다.

박람회는 핵심 주제관인 '농업미래

전'을 통해 AI 기술이 이끄는 미래 농업을 소개하고 있다. AI 스마트팜, 기후 변화 대응 품종, 우주 시대 먹거리 기술 전시와 세계 선두 기업 자율주행 트랙터 체험, 로봇견 스왑 시연 등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최신 농기계와 스마트팜 기술, 농자재 전시 및 판매 부스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산업전'을 운영해 산업 기술과 정보를 교류한다. K-농업의 글로벌 교류와 수출 확대의 장인 '비즈니스전'도 운영된다. 16개국 50여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월드푸드테크 포럼, 국제커피 심포지엄 등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염선호 기자

호남 최대 미술시장 '광주국제아트페어' 23일 개막

26일까지 김대중센터... 11개국 94개 갤러리 105개 부스 운영

호남 최대 미술시장인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가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전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26일까지 나흘간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갤러리 관계자, 작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국내외 거장 작가들의 작품과 청년작가들의 신선한 시도를 감상하며 미술의 다양성과 매력을 체험했다. 올해 '아트:광주'는 국내외 11개국 94개 갤러리가 참여해 총 105개 전시 부스에

서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지역 갤러리 45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역 미술시장 성장세를 반영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해외 갤러리 중 일본의 세이야 파인 아트(SEIYA FINE ART) 갤러리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스페인의 샹피에 아트 갤러리(Chaiter Art Gallery)는 '콜롬비아의 피카소'로 불리는 두반 로페즈의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솔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